

지역 이모저모

대구시

韓 국제 농기계 자재 박람회

국내외 농기계 및 자재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KIEMSTA 2024)’가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엑스코에서 4일간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25개국에서 429개 기업(국내 335개, 해외 94개)이 참가해 1,902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최신 농기계와 자재를 선보인다. 또한,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스마트팜 시장 개척 세미나,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발농업 기계 현장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수소 트랙터, AI 농업용 로봇, 드론 등 미래 농업기술이 전시되어 자율주행 트랙터와 방제로봇 등 최첨단 농기계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대구=김준환 기자 kjh9@

울산시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완료

울산시는 북구 효문동과 연암동에 있는 모듈화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한 ‘2024년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올해의 경우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모듈화 일반산업단지’ 내 녹지 면적 1만 1000㎡에 이팝나무 등 미세 먼지 저감 능력이 탁월한 산림청 권장수종 1만 384그루를 심었다.

특히 산업단지 내 공장 주변으로 이팝나무, 느티나무, 해송 등의 교목과 조팝나무, 꽃댕강나무 등을 다열·복층구조로 심어 밀도 높은 숲을 조성했다.

앞서 2022년에는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산1·2차 일반산업단지 내 면적 1만 1000㎡에 느티나무 등 1만 824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2023년에는 총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곡2·3차 산업단지 내 면적 5000㎡에 편백나무 등 1만 7339그루를 심었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창원시

내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창원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도 녹색자금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6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녹색자금을 포함해 총 1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 길과 나눔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무장애 나눔 길 조성 사업은 보행 약자와 이동 약자의 산림휴양 기회 확대를 목표로, 진해 목재문화체험장 일대에 약 1km 길이의 산책로를 조성한다.

이 산책로는 휠체어나 유모차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 경사도 8% 이하, 폭 1.5m 이상으로 설계돼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복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전남특자도, ‘라’자 넣어 ‘전라남특자도’ 변경

전남도, ‘전라남’으로 명칭 변경  
역사·정체성 살리기 위한 결정  
전문가 그룹·의회 등 종합 검토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도가 지역발전의 신(新) 성장동력으로 꺼내든 특별자치도 지역 명칭이 ‘전남’이 아닌 ‘전라남’으로 변경됐다.

‘전라남도’를 ‘전남’으로 축약할 경우, 전라도 1000년 역사와 정체성을 대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라도(全羅道)라는 명칭은 1018년 고려 현종 9년에 전주의 ‘전(全)’과 나주의 ‘라(羅)’자를 합쳐 탄생한 지명이고, 구한말 남·북으로 분도하면서



전라남도청 전경.

전라남도(전남), 전라북도(전북)으로 나뉘게 됐다.

‘전’자를 그대로 살린 전북특별자치도와 달리 전남특별자치도의 경우

‘라’자가 빠지게 돼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역사성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 때문에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전남도의회와 나주시의회는 특별자치도 명칭에 ‘라’자를 포함시킬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소속 22명의 시장과 군수도 명칭 변경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전문가그룹과 의회, 일선 지자체 의견을 종합 검토한 끝에 ‘전라남’으로 명칭 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공식화했다.

30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리는 특자도 설치 관련 첫 도민공청회에서

도 ‘전라남 특별자치도’를 공식 명식으로 사용했다.

특별법 명칭 변경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6명이 동참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도 전남을 전라남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안팎으로 의견을 수렴해 ‘라’자를 살리기로 교통정리됐다”며 “특별법 법안의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 입장을 듣도록 돼 있는 만큼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자전거로 누비며 남해안 절경 즐겨요” ‘항공여행마켓’ 특가 항공권 등 이벤트

경남도, ‘투르 드 경남 2024’ 개최  
통영·거제·남해·창원 300km 구간

경남도가 세계적인 프로도로 자전거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 착안해 진행하는 ‘투르 드 경남 2024’가 오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남해안 일대에서 열리는 가운데, 오는 9일 남해군 코스 65km 구간에서 대한민국 대표 건각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도체육회 및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경쟁형 사이클 대회다.

경남도는 수려한 남해안의 풍광과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를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기획했으며, 대회 참가자들은 통영·거제·남해·창원에서 총 300km 구간을 달리게 된다.

오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되는 남해안 대회의 출발지는 총렬사다. 남해군 코스는 총렬사~이순신 바다공원~서면스포츠파크~남면공설운동장~이동면미국마을~탈공연박물관~남해군보건소~고현면성산



지난 24일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투르 드 경남 2024(스페셜대회)’를 준비하는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시

교차로~설천면 로터리공원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대한자전거연맹 마스터스 랭킹 300위 이내 최상위급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참여하는 만큼 고품격 엘리트 자전거 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국제사이클연맹(UCI)이 공인하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여하는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 ‘투르 드 경남 2025’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내달 1일까지 시청 대회의실

부산시와 한국공항공사는 31일부터 11월1일까지 시청 대회의실 전면 홀에서 ‘2024항공여행마켓 in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부산발 항공권과 여행상품 할인판매, 참여 업체별 홍보 이벤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항공사인 에어부산을 비롯해 이스타항공, 싱가포르항공, 베트남항공, 핀에어 등 김해공항 취항(예정) 5개 항공사와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여행사, 김해공항 입점업체인 롯데면세점, 경복궁면세점 등 총 10개 업체가 참여한다.

에어부산은 국내선 특가 항공권을 유류세와 공항세 포함 편도 기준 ▲주중권(월~목) 3만9900원 ▲프리미엄

권(주말/성수기) 7만9900원에 판매한다. 항공권은 올해 동계 시즌 내(2025년 3월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수량은 1일 각 100장씩 선착순 판매된다.

다음 달 13일부로 예정된 홍콩 노선 복항을 기념해 부산~홍콩 왕복 특가 항공권도 판매한다.

에어부산은 부산~홍콩 항공권을 유류세, 공항세 포함 왕복 총액 24만 9000원에 판매한다. 유효기간은 약 7개월(2024년 11월13일~2025년 6월30일)로 일부 성수기 기간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수량은 1일 50장씩 선착순 판매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재 코로나19 이전 90%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는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을 완전 회복해 내년에는 연간 항공여객 1000만명 재달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인구 감소 대응, 자유로운 휴양 공간 마련

경주시, 토함산 ‘웨케이션 빌리지’

경주시가 지방소멸 위기를 맞아 생활인구 유치에 간간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정부가 정주인구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마련됐다. 이는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시는 문무대왕면 토함산자연휴양림 내 내년 10월까지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웨케이션빌리지를 조성한다. 이 사업은 스타트업 기업 및 청년

층의 업무 방식 변화에 발맞춰 자유롭게 일하면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젊은층 유입, 정착을 통해 고령화된 동경주 지역의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지에는 공유하우스 9동, 공유오피스 1동, 부대시설 2동이 조성된다. 공유오피스는 기존 국학관(953㎡)을 리모델링해 건립되며, 부대시설로는 음악감상실, 갤러리, 요가 등의 다양한 공간이 들어선다. 특히 시는 동경주지역에 추진 중인 신라킹덤오션과 문무해양프로젝트의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과 연계해 웨케이션빌리지를 운영할 방침이다. /경주(경북)=최지웅 기자

바스타비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해리스·트럼프 미 대선 앞두고 투표함 화재 잇따라  
▲중국, 1500억대 뇌물 전 구이저우성 서기 사형 집행유예 /사진 뉴스스

▲남아공, 이스라엘 가자 대량학살 증거 문서 ICC 제출  
▲핀란드 대통령, 시진핑과 회담서 “북한 러 파병 등은 도발”



▲일본 증시, 반도체주 매수세에 3일 연속 상승 마감  
▲노르웨이 오슬로서 트램 탈선… 상점으로 돌진 /사진 뉴스스